

이용섭 광주시장 “日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를” 광주구청장협의회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키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놓고 광주 지역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8일 오전 성명을 내고 “일본 국수주의가 상식과 도를 넘어 인류의 삶마저 위협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생명·안전을 위협하

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결정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그동안 그릇된 역사 의식을 갖고 끊임없이 한·일 역사를 왜곡해온 것도 모자라, 이젠 우리의 삶을 통째로 파괴하려 하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는 인류와 자연에 대한 크나큰 범죄 행위다”라고 성토했다.

“생명 위협·생태계 파괴 무책임·일방적 결정” 지방의회도 “무책임한 결정” 잇단 규탄 목소리

이 시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광주시는 중앙정부, 전국 지자체, 정치권과 연대를 통해 일본의 부당함을 강력히 규탄해 나갈 것이다”며 “더 이상 지구촌의 평화·안전을 해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일본에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라고 했다.

앞서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도 지난 16일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바다에 방류키로 한 최악의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광주시민과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시민, 국제사회와 연대,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또 “일본 정부는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 정보를 전세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처리 방법을 놓고 주변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광주 자치구 의회에서도 관련 성명

이 잇따랐다.

북구의회는 지난 16일 의회 앞 광장에서 규탄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각종 방사능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방출하겠다고 하지만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아 인류 최악의 해양오염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우리 정부도 전 세계 각국과의 공조를 통해 실효적인 대책을 즉각 강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구의회도 지난 15일 오전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이 반발하고 있고 일본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여론을 무시한 것이다”라며 “국민 안전이 가장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를 향해 무책임한 방류 결정의 즉각 철회를, 우리 정부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촉구했다.

기동취재본부

동구, ‘지산C진출로 우회도로’ 개설 추진

광주 동구는 지산C진출로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지산C진출로~조선대 학교 사범대 도로개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등산 관광객 접근성 개선을 위해 오는 7월 준공을 목표로 광주광역시 주관 제2순환도로 지산C진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동구는 지산C진출로 개통 이후 통행 차량이 증가하기 이전에 통행량 분산을 위한 대안으로 총사업비 35억 원을 들여 조선대 교내를 관통하는 ‘지산C진출로~조선대 사범대 도로개설(왕복2차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구, 양동전통시장 ‘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

광주 서구는 광주·전남의 대표 시장인 양동전통시장 주변에서 각종 폐기물 무단투기하는 행위를 엄정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양동시장 일대엔 매일 스티로폼·목재 생선박스 등 각종 폐기물이 야간·새벽 시간대를 틈타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고 통행에 불편이 빚어지는 등 시장 이용객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서구는 최근 잇단 단속 요청 민원에 따라 단속반을 구성,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주 2차례 이상 단속을 펼친다.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간 심야시간대 불법 투기 단속을 벌여 총 7건을 적발, 과태료 17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남구 “스쿨존 주정차 과태료 12~13만원”

광주 남구는 16일 “다음달 11일부터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승용차 및 승합차 기준으로 각각 12만원과 13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지난해 11월 10일 공포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효력이 오는 5월 1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한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를 일반 도로보다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구, ‘중소기업 고충 해결’ 전문상담 기관 운영

광주 북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고충을 덜고자 이달부터 무료 경영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기업성장지원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해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와 협업, 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지원단은 ▲기업 성장 지원 ▲백년기업 도약 ▲경영혁신 등 3대 분야에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기업 성장 지원’은 전문 상담가가 기업을 찾아 성장 전략, 영종 고도화, 스마트 공장 등에 대해 조언한다.

‘백년기업 도약’은 2세 경영인으로 구성된 백년기업 포럼을 대상으로 ‘장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 등을 함께 고민하는 프로그램이다.

광산구, 송치·북산·오산지구 지적재조사

광주 광산구는 송치·북산·오산1지구 등 1100필지·46만9601㎡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지적 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는 토지 정형화, 경계 조정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한다. 토지 실제 이용 현황·지적 공부 등 록 사항을 일치시키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는 국책 사업이다.

이를 위해 광산구는 해당 3개 지구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지구 지정신청 동의서,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동의서 등 관련 서류 등을 접수하고 있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달 25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본부(LX)를 측량 수행자로 선정, 오는 9월 중순까지 건축물, 울타리, 현황 도로 등 토지 현황을 측량한다.

임행덕기자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보상절차·이주대책 설명회

광주도시공사는 오는 5월 16일까지 광주연구개발특구 보상설명회를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토지 등 물건소

유자들에게 보상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 공사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게시했다.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는 면적 361만6853㎡로 시행기간은

2011년부터 2025년까지다.

광주도시공사는 R&D특구 내 첨단3지구를 개발함으로써 광주·전남 지역 내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적극 대비하고 인공지능(AI)집적단

지 등 미래지향적 R&D 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계획이다.

광주도시공사 노경수 사장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보상설명회를 온라인을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면서 “앞으로 대상 소유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도시철도, 전국 첫 ‘ESG 경영’ 선포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ESG 경영 선포식을 갖고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에 대한 책임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공사는 도시철도 중심의 생태교통 조성과 사회적 약자 배려 시스템 구현, 시민 참여 경영 플랫폼 활성화 등 112가지 ESG 경영과제를

발표하고 공유와 연대의 새로운 공기업 경영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공사는 이날 선언식에 앞서 ESG 고을대중교통네트워크와 함께 녹색교통 전환 포럼을 개최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송어나 전남대 교수의 발제와 함께 대중교통기관, 시민단체, 기업 등 지역 사회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태교통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진보 사장은 “시민 행복을 중심으로 두고 광주도시철도만이 보유한 기술과 역량으로 차별화된 미래형 경영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윤희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력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력남도본부

한국인문진흥재단
Korea Phoenix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제안한 슬로런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급여비	보험료	비율
고소득층	240,833원	1.1배
4분위	125,531원	1.7배
3분위	79,147원	2.1배
2분위	48,103원	2.7배
저소득층	26,697원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